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8권 제1호 (2020. 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이형하O
O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mail: hhlee62@kwu.ac.krO

Effect on Suicide Thoughts of Permanent Rental Housing Residents

Hyoung-Ha LeeO
O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K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주거공간, 정신건강 등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조사완료된 설문문항 중 본 연구와 관련된 성별, 연령대, 학력, 신체적 건강, 음주횟수, 자살생각은 각각 1문항, 주거환경 10문항, 우울11문항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우울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16.93점(표준편차 12.76)으로 16점보다 높게 나와 입주자의 우울증이 매우 의심할 수준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신체적 건강상태, , 음주횟수,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 우울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키워드: 영구임대주택(permanent rental housing), 신체적 건강(health condition), 자살생각(Suicid thoughts)

I. Introduction

영구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으로 시장가격 이하의 임대료로 제공되는 주택, 즉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자는 우선 집 걱정은 덜어지게 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은 30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 입주민의 주거불편을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주거공간 내외부의 주변환경도 불편함이 해결되지 못한 실정하다. 또한, 가구구성에 있어서도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1인가구의 비율도 높고 오랫동안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로 인한 우울증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거환경과 우울증 등은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생각된다. 더욱이 입주민들도 수급자나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대부분 거주하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과 함께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배제의 공간으로 자리잡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광역시 영구임대아트 입주민의 우울수준에 대한 분석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는 K광역시 영구임대아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 조사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3,075세대 중 총 2,263세대를 조사 완료하였다. 조사완료된 설문지 중 부실한 응답이 포함된 설문지와 만 20세미만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2,122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6월 24일 ~ 8월 31일에 이루어졌다. 분석문항은 성별, 연령대, 학력, 신체적 건강, 음주횟수, 자살생각은 각각 1문항, 주거환경 10문항, 우울11문항 이었다. 주변환경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r Alpha=.865, 우울의 신뢰는 Cronbar Alpha=.886로 높게 나타났다.

III. Analysis Results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참조). 남성 44.6%(947명), 여성 54.6%(1,158명)로 여성이 더 많게 조사되었다. 나이는 평균 62.9세(표준편자 14.13)이며 최소 만 20세부터 최고 97세로 분석되어 K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연령대가 60대 이후가 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수준은 중학교졸업(중퇴포함) 이하가 65.2%(1,383명), 고등학교졸업(중퇴포함) 26.4%(561명), 대학교이상(중퇴포함) 8.3%(177명)로 학력수준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상태는 좋음(매우좋음+좋음) 12.3%(260명), 보통 13.4%(283명), 좋지않음(좋지않음+매우좋지않음)

49.9%(1,576)로 분석되어 입주자의 거의 50%가까이가 신체적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주횟수는 전혀마시지 않는다 69.5%(1,474명), 최소 한달에 1회부터 주 4회이상 30.5%(621명)으로 조사대상자의 3/1정도가 최소 월 1회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36점(표준편차 0.66)으로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우울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16.93점(표준편차 12.76)으로 16점보다 높게 나와 입주자의 우울증이 매우 의심할 수준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es-criptiv statistics

variable	Frequency %, (people)				
gender	male		female		
	44.6(947)		54.6(1,158)		
age range	mean 62.9 years, minimum 20 to maximum 97 (s.d.=14.13)				
education	junior high school or less		high school graduation	university or above	
	65.2 (1,383)		26.4 (561)	8.3 (177)	
health condition	very good	good	usually	bad	very bad
	5.0 (106)	7.3 (154)	13.4 (283)	36.5 (774)	37.8 (802)
drinking times	none	month 1 time	month 2~4 time	week 2~4 time	week 4 or more times
	69.5 (1,474)	8.3 (176)	9.8 (208)	7.3 (154)	3.9 (83)
circumstance	mean 3.36, minimum 1 to maximum 5(s.d.=.66)				
depression	mean 16.93, minimum 0 to maximum 60(s.d.=12.76)				
Suicid thoughts	no		yes		
	71.8(1,526)		28.2(600)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참조).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는 신체적 건강상태(r=.184, p<.01), 음주횟수(r=-.163, p<.01), 우울(r=.315, p<.01)로 분석되었고, 주변환경은(r=.000, p>.04)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1. health condition	2. drinking times	3. circumstance	4. depression	5. Suicid thoughts
1	1				
2	-.163**	1			
3	.000	-.066**	1		
4	.315**	-.010	-.132**	1	
5	.184**	.067**	-.106**	.446**	1

**p<.01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Table 3. 참조).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신체적 건강상태(*B*=.069, p<.01), 음주횟수(*B*=.082, p<.001), 주변환경(*B*=-.042, p<.05), 우울(*B*=.413, p<.001)로 분석되었다. 즉,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음주횟수가 많을수록,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Regression analysis

	B		*B*	t
constant	-.205	.061		-3.353**
health condition	.028	.009	.069	3.226**
drinking times	.032	.008	.082	4.028***
circumstance	-.003	.001	-.042	-2.059*
depression	.029	.001	.413	19.446***
R-squared = .204 Adjusted R-squared = .202 F(df)= 127.593(4)***				

REFERENCES

[1] Youn-Ju Lee, et. al., " Alcohol Status and Related Factors of Drinking Problems among Residents at Permanent Rental Apartm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2 pp. 1227-1239, 2015.

[2] Yong-Un, Cho & Chang-Keun, Ha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Attempt among Elderly Man Living Alone in Permanent Rental Housing: Analyzing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4, No. 4, pp. 295-320, 2014.